

2019년 10월 22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 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시편 124 편).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반년 만에 여러분에게 사역보고를 올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2017 년도에 도시샤대학 신학부 연구원으로 2 년 임기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원중 선교사를 일본의 신학교에서 일하도록 부르신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나를 연구활동과 대학에서의 일에 전념하며 교회 사역은 보조적인 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 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점에 신학교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전망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게다가 저의 재류 자격(비자)가 2020 년 3 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전임으로 대학(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아니면 ‘교수’로서의 비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참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도 중이지만, 아직 저희가 일본에서 해야 하는 일이 완수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으며,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도움 삼아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진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큰 아이 지용이가 고 2, 작은 아이 지민이가 중 2

입니다. 내년에 고 3, 중 3 이 되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타지역의 공립고등학교로 전학하는 일이 쉽지 않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모의 부르심에 자녀들 역시 순종하여 일본에 와서 산 지 10 년이 넘는 동안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선교 동역자와 같은 보배였습니다. 이 어린 동역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감내해야 할 수고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 년 한 해도 우선 교토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재일대한기독교회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관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과 같이 도시샤대학에서 일본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면서,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인들 간에 다리를 놓는 일을 다양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2. 도시샤대학 사역

1 학기에 이어서 2 학기에도 ‘일본기독교역사’와 ‘건학의 정신과 기독교’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기독교역사는 저의 전공이자 신학부 전공 과목입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 잘 알고 있다고 여기던 것도, 새롭게 읽고 공부하면서 점점 더 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것과는 또 다르게 가르치면서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기독교를 한국에 번역해서 소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건학의 정신과 기독교’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교양과목입니다. 도시샤대학을 세운 니지마 죠(新島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경위를 거쳐 도시샤대학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니지마가 대학을 세운 목적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인물을 키우는 것이었기에, 그 목적과 더불어 기독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이 과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양과목이다 보니 수강생도 많고

모두가 신학부가 아닌 다른 일반 학부의 학생들입니다. 일부 기독교 계통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습니다. 니지마 조라는 창립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고, 학생들도 자신들이 다니는 대학의 창립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신학교, 대학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미온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학기를 했을 뿐인데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현실이 대학에서 전임으로 가르치는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선하고 온전하심을 믿고 지금 제게 주어진 자리,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3. 교토아오이교회(京都葵教会) 협력



교토아오이교회에서도 하는 일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미연 선교사는 지난 7월 28일 '에녹회'(남선교회) 모임에서 저희가 일본에 오게 된 계기와 한국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설교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원중 선교사 역시 9월 22일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고, 또 10월 6일에는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25일에 가졌던 모임에는 고등학생, 청년, 어른들까지 해서 10명이 방문하여

주었습니다. 한창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험악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와 같이 신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하고 교류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사도교회와 나가사키 방문

일본기독교역사를 공부하면서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나가사키였습니다. 저의 전공은 개신교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역사 속에서 16세기 가톨릭 선교가 남긴 영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그 가톨릭 선교의 자취가 여전히 남아서 살아있는 곳이 나가사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8일-8월 1일 사도교회의 이경호 목사님을 비롯한 21명의 일본선교역사팀과 나가사키를 탐방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가사키는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에 걸친 가톨릭 선교의 역사적 현장일 뿐 아니라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말, 1945년 8월 9일 원폭을 경험한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선교, 일본 역사, 그리고 핵무기와 평화 등 기독교의 하나님나라를 추구하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생각할 거리를 배울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교회의 배려 속에서 편안한 숙소와 교통편을 이용하며, 역사의 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단기 비전 여행을 진행할 때, 교토를 중심으로 일본의 종교와 역사를 배우는 기회로 삼았는데, 나가사키 또한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하신 일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보기에 좋은 장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사도교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 복음의 발걸음

9월 2일부터 1박 2일간, 본교단 세계선교부 파송 일본현지선교사회의 총회를 나고야미나미(名古屋南)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원중 선교사는 일본선교사회의 서기 및 회계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임원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준비한 선교사 연례 총회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선교사들이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더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데다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높아서, 총회 이외에는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까지의 선교사역을 정리하고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1972년 본교단에서 최초로 정식 일본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2022년은 그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반세기를 돌아보며 향후 일본 선교의 나아갈 바를 전망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고야미나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일본선교사회 회장 전병욱 목사님 부부의 헌신적인 봉사와 여러 임원들의 착실한 준비 가운데 총회와 그 이외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허락된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여러 사정상 참석조차 할 수 없었던 선교사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일본 선교사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신들의 선교 현장과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원중 선교사가 하고 있는 또 한가지 일은 교토에 있는 ‘윤동주 추모회(尹東柱를 偲ぶ 會)’의 사무국장입니다. 도시샤대학을 졸업한 재일교포들이 남과 북의 하나됨을 염원하며 ‘하나의 코리아’의 정신으로 1995년 2월, 윤동주 시인 서거 50년이 되는 해에 도시샤대학에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시비를 세웠습니다. 추모회는 매해 2월에 이 윤동주 시비 앞에서 헌화식을 개최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시비를 관리하는 등 말 그대로 윤동주 시인을 추모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사무와 관련된 일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에 있었던 ‘도시샤대학 코리아동창회’ 모임에서 도시샤대학 창립자인 니지마 쇼와 일본에 와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이수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에는 짧은 일정으로 추모회 회장님 및 코리아동창회의 임원들 연세대학교에 방문해서 윤동주를 기념하는 일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의논하고, 한국동창회의 임원들과 상호 협력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일은 직접적인 복음전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윤동주 시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시를 기리는 일은 보다 큰 하나님나라의 살롬을 일본 땅에,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현재, 미래를 가운데 실천하는 데에 중요한 디딤돌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원중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 왔습니다. 6 월 19 일에는 무코가와(武庫川)교회, 8 월 18 일에는 고베(神戸)교회, 8 월 25 일에는 나라남부(奈良南部)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각 교회를 방문하며, 현재 일본의 한인교회들의 상황을 더 알아가고 선교의 과제를 생각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11 월, 12 월에도 몇몇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아 설교 봉사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6. 일본의 현황과 과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일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 사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본으로 여행하지 않기,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연일 방송과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본교단 선교사 중에 대마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계신데 대마도는 일본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관광업에 종사하던 한국인들도 사업에 큰 타격을 입어서 교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선교사의 입장에서 '한국기독교공보' 9 월 14 일자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꼭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링크)<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217985476>

여기에 덧붙이자면 현재 일본은 제가 보기에 염려되는 바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정치면에서는 아베 정권의 독선적이다 못해 독재에 가까운 행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정치권 안에도, 사회에도, 일반 시민들에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주요 언론이 현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입은 커다란 피해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그 상황이 잘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까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피상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회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며 새로운 전도의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나마 그 안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일본이 과거 역사 속에 저질렀던 죄를 통회하며, 현재도 양심을 속이며 증오를 부채질하는 이들의 잘못을 아파하고 반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지난 10 월 6 일, 제 38 회 교토한일교회연합예배에 참석하여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심적이며 양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문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과거 제국주의 시대로 돌이키고자 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가진 이들에게 너무 많은 돈과 권력이 있다는 것이며,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일본의 희망은 이러한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시민들과의 교류는 멈추지 말아 주시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관심과 미움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 기도 제목

- 1) 2020 년의 사역을 위해서 적절한 재류자격(비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 2) 2020 년 이후의 사역의 길(교회 혹은 신학교 사역,
아니면 제 3 의 어떤 것)을 주께서 선택하고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 3) 이원중 선교사의 교수 및 연구 사역, 안미연
선교사의 한글교육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창의적인 일본 선교의 길이 열리도록.
- 4) 장남 이지용, 차남 이지민이 수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상급 학교 진학으로 이어지도록.
- 5) 일본의 정치와 시민 사회, 경제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변화되며, 한일간의 관계가 바르고
공정하게 정립되도록.
- 6) 10 월 22 일 새로 등극한 일왕(天皇, 덴노)이
현재의 헌법을 지키며, 일본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 7) 일본의 각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역동적으로 증거하며,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사회의 상황을 뉴스로 또 직접
이야기로 전해 들으면서 저희 역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일터 그리고 한국 사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며, 사랑이